

화요글발



서 규 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세렌디피티, 우연과 필연사이

항생제 분야 발전의 시발점이 된 페니실린의 등장, 방위산업체에서 레이더 장비를 연구하던 중 호주머니 속의 초코바가 녹아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극초단파로 음식을 가열하는 전자레인지의 개발한 것도 그런 사례다.

존스홉킨스대학의 한 연구자가 석탄에서 온종일 콜타르를 추출하다 손을 씻지 않고 퇴근했는데 손에 묻어있는 물질에서 감미로운 단맛을 느끼고 개발한 사카린도 마찬가지다. 실패한 접착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메모지 포스트잇 등은 실험 과정에서의 실패가 외려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진 것들이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스토어인 아마존의 창업자(제프 베저스)는 재미 삼아 차고에서 중고책을 판 경험이 자신의 세렌디피티였다고 했다. 아마존의 출발점이 차고지에서의 세일이었던 것이다.

에디슨도 전구에 필요한 필라멘트를 얻기 위해 2774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추사체로 잘 알려진 추사 김정희 고택에 이런 글귀가 있다. 칠십 평생에 '벼루 열 개를 갈아엎애고, 붓 일천 자루를 몽당뽕으로 만들었다(磨千十研, 禿盡千毫)' 새로운 예술의 경지를 만들어낸 추사체의 완성에 금석학적 관심과 부단한 노력, 시간 투자가 세렌디피티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몇몇 사례로 본다면 세렌디피티는 노력하는 자에게만 미소짓는다. 들판에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할 수 있겠는가.

누구나 우연히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대한 발견으로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시도와 창조적인 노력이다.

기술, 지식의 축적이 우연을 필연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촉매인 것이다.

충남테크노파크에도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신화를 만든 기업들이 많다.

올해 충남테크노파크는 개원 25주년을 맞아 25개 기업의 성공사례를 책자로 펴냈다. 지역중소기업 지원분야도 디스플레이, 바이오, 자동차 부품,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 다양하다. 또 200여 중소기업들이 테크노파크 시설에 입주해 오늘도 제조업의 새로운 기술혁신에 도전하고 있다. 테크노파크와 기업의 만남은 아마존, 구글 설립자들이 말하는 세렌디피티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충남테크노파크는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 기술, 전문인력 등 기업에 소중한 사업과 상품화 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력하고 실천하는 기업들에만 미소짓는 행운, 우연과 필연 사이 그 어딘가에 놓여있는 기회 세렌디피티가 이곳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전 퇴근길의 고려대 앞을 지날 때마다 세렌디피티라는 이름을 가진 카페가 유난히 눈에 들어오곤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에 가 다시 지나다 보니 그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뉴욕 맨하탄에도 같은 이름의 음식점이 있는데, 이 음식점은 20여년 전에 상영된 두 남녀 주인공이 크리스마스에 운명적인 재회를 다룬 영화 세렌디피티의 촬영지로도 활용되었다.

과학사에서는 우연한 발견으로 얻어지는 행운을 세렌디피티라 한다.